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8일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공구 특설무대에서 열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매립공사 착공식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착공버튼을 누르고 있다.

## 새만금 산단 3·7공구 조기 매립 착공

입주 수요 증가로 2025년 예정된 계획 1년 앞당겨

한덕수 총리 "새만금 도약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맞춤형 기업지원 더욱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새만금국가산업단지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이 8일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인준 군산시장, 정문천 국회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매립공사는 2025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분양중인 1·2·5·6공구 산업용지(5.3㎢)의 분양률이 84%를 기록함에 따라, 잔여 산업용지(3·7공구)의 조기 매립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조기 착공이 이뤄졌다.

기업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역이용 협의와 매립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입찰방범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의 적극행정으로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긴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의 매립 면적은 총 3.81㎢에 달하며, 3공구 2024년 10월, 7공구 2024년 11월에 매립을 완료해 2025년 상반기부터는 입주기업이 공장 설계를 위해 측량 등을 할 수 있도록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새만금 사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며 "3공구와 7공구 매립 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돼,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중심지로서 새만금의 가능성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며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과 함께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당장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새만금의 눈부신 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내년 1월 출범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초기에 빨리 착공해 다행이지만 하루속히 매립이 완공되고 준공이 되어서 기업들에게 적기에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새만금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아 이 사업이 잘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착공식 후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및 엘에스엘엔에 프매터리솔루션, 도레이첨단소재, 성일하이텍 등이 참석하는 기업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전력 공급시설 등 기반 시설 조기 구축, 탄소 배출 저감에 따른 혜택 제공 등 무관소 경영 지원 강화와 같이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기업의 의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반 시설 조기 구축 등을 위한 국회의 예산 협의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에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간담회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는 "이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기 매립 투자기업 현장의견 청취는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들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 문화 콘텐츠 육성 문체부 문화도시 지정 주력

시·군 수요조사,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선정 노력

전주·군산·부안 등 3개 시·군 공모 신청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사업인 문화도시 사업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고도화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된다.

문체부는 지난 6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에 전북도는 이러한 정부의 문화육성 정책방향 흐름에 발맞춰 전북의 문화 콘텐츠와 도시브랜드를 육성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24개 도시가 총 4차에 걸쳐 문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완주군(2차, 2020년), 익산시(3차, 2021년), 고창군(4차, 2022년) 3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특색을 담은 문화 거점공간이 조성되고 문화창의인력이 전문적으로 양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총 13개소(전라권 광역시권, 경기권 등 7개 권역, 권역별 2개소 내외 선정)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 접근성을 개선하

여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고 지역 문화에 기반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도는 도내 시군의 공모 선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모에 신청할 것으로 파악된 3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부안군)을 대상으로 전보연구원과 연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공모신청서 작성 시 각 시군의 지역적 특색과 장점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도와 시군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제1차 문화도시 사업에서 3연속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듯이,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공모 역시 도내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신청은 8일부터 14일까지 1주간 진행되며,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선정 지자체를 발표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서 각종 문화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도의회, 프랑스 등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는 8일 제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장수, 더불어민주당·사천)이 대표 발의한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건의안'을 채택했다.



로부터 수입이 이뤄진다면 우리 농가의 피해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는 '유행성출혈열' 발생 국으로 현재 유행 중인 렘피스키병과 유사해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건의안에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 적극 반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해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 보장, △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연내 처리 등을 담았다. /김재훈 기자

